

나가사키 평화 선언

1945년 8월 9일, 미 공군기가 투하한 한 발의 원자폭탄은 순식간에 나가사키의 시가지를 파괴했고 그해 말까지 시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5만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13세에 피폭한 고(故) 요시다 가쓰지 씨는 지옥과도 같은 참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폭심지 쪽으로 향하자 숲처럼 검게 탄 사람,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 내장이 쏟아져 나온 사람,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었다. 우라카미강에 다다르자, 그곳에도 화상으로 피부가 짓무른 수많은 사람이 기름과 피, 더러운 물이 뒤섞인 그 물을 마시며 잇따라 숨을 거두어 갔다. 나는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벗겨진 피부는 몸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도 피부는 붙어 있었지만 검붉게 그을려 있었다.

요시다 씨의 얼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큰 화상 흉터가 남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 역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방사선 영향으로 암 등이 발병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탄두는 1만 2천 기가 넘습니다.

왜 이토록 잔혹한 무기에 집착하는 나라가 있는 것일까요?

국제사회에 만연한 상호 불신과 대립, 분단 속에 강대국의 ‘힘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당사자가 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 역시 여전히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핵무기의 현대화와 증강 등 핵군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호 불신과 대립, 분단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가 핵군축을 위한 성과 문서를 세 차례 연속으로 채택하지 못한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하는 것만으로 타국의 공격을 단념시킬 수 있다는 ‘핵억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국의 존망을 걸고 궁극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과연 ‘핵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이라는 마지막 선마저 넘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존엄성도 산산조각 내버리는 핵무기의 위력을 몸소 겪은 피폭자와 피폭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핵억지론은 매우 위험하다. 핵무기는 ‘필요악’이 아닌 ‘절대악’이며 인류와 핵무기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가는 ‘지구 시민’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평화의 원점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는 요시다 씨가 피폭 체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전하던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고통에 마음을 기울이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대립과 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에 신뢰를 쌓고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다 씨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이어 나갑시다.

전 세계 국가의 지도자 여러분. 유엔 헌장의 이념에 기반한 다자주의와 ‘법의 지배’를 하루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항구적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이루고자 했던 유엔 창설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핵보유국과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국가의 지도자 여러분. 핵억지력에 의존하면 할수록 핵전쟁의 위험성 또한 커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NP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핵군축을 향해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핵무기금지조약 재검토회의에 참가하여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일본국 헌법의 평화 이념과 비핵 3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국제사회의 긴장 완화와 군축을 위한 외교를 강화해 주십시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실현 등을 통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평균 연령이 86세를 넘는 피폭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아직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폭 체험자를 하루빨리 구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원자폭탄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모든 전쟁 희생자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피폭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지금이기에, 미래를 향해 피폭의 기억과 피폭자의 마음을 확고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이 맹세를 영원한 사실로 만들기 위해 나가사키는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핵무기 폐기와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실현을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2026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 스즈키 시로(鈴木 史朗)